



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 발행인의 데스크



## 한국, 새로운 발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복원

편집자 주: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기사는 미군들을 위해 미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영자신문에서 따온 글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출근하는 모습과 젊은 한 쌍이 물가에서 한가로이 즐기고 있는 모습에 매료되어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수도권의 박물관, 극장, 공원 및 기타 공공 시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요일부터 2 주간 문을 닫을 것이라고 보건 당국이 밝혔다.

이 발표는 한국이 최근 2개월 동안 가장 큰 하루 확진 건수인 79 확진자가 밝혀지면 서 곧 발표됐다.

이와같은 확진자 수효는 한국과 다른 국가들이 정상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밝혀져 코로나 바이러스의 엄격한 봉쇄 조치가 다시 취해질 위험이 높아졌다.

주한 미군 당국은 이달 초 서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지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지만 모든 영업소와 다른 "성인 전용" 시설 출입은 여전히 엄격히 통제해 왔다. 또한 주한 미군 사령관 로버트 아브람스(Robert Abrams) 장군은 8월 20일까지 민간인과 군인들을 위한 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 공중 보건 응급 상황을 갱신했다. 대구 남동쪽에 있는 주둔지 수비대 사령관 에드워드 발란코(Ballanco) 대령은 목요일에 군 순찰대가 "지난 주 동안, 술집에 많은 미군들이 있었다" 보고했지만 세부 사항을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 미



군이 강등되었고, 민간 직원과 계약자는 미군부대 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받기도 했다.

Ballanco 대령은 페이스북 라이브 커뮤니티 업데이트에서 "미군들이 (한국) 식당에 가더라도 술을 마실 수도 있는데 바(bar)로 가서 별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는 서울 서쪽의 위성 도시 부천에 있는 한국의 전자 상거래 회사 쿠팡이 운영하는 유통 센터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염 집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질병 통제 센터는 최소 82 건의 감염이 그곳 근로자들과 관련이 있으며,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4,000명 더 시험했다고 밝



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서울 지역의 나이트 클럽과 바에서 비슷한 발병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데, 이 수효는 약 2,500만 명으로 한국 인구의 약 절반 가량이다.

박능후 보건 장관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시설은 인구 밀집된 수도와 주변 지역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금요일부터 6월 14일

▲ 5월 28일 목요일 아침 서울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청결 유지 및 안면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검역 규칙을 따르도록 촉구했다.

불필요한 모임을 피하고 몸이 아프면 집에 있어야 한다고 주민들은 항상 유의하고 있다.

▲ 5월 28일 목요일, 한국 서울 전쟁 기념관 근처에서 한 쌍의 부부가 망중한을 보내고 있다.

까지 문을 닫을 것입니다."라고 발표했다.

박장관은 바, 클럽 및 기타 유흥 시설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으며, 회사 사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한 시간을 채택하고

정부가 전국적으로 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지만 박 장관은 향후 2주간의 상황이 앞으로 제한 조치가 확대 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는데 "중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우리가 대도시 지역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기에 제거하지 못하면 더 많은 지역 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긴급 회의 후 목

즉 이 지역의 주한 미군들과 연관이 있는 미국 시민들은 미군기지 밖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지역 사회의 다른 사회 활동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무제한 지역으로 여행할 수는 있습니다.

두 개의 주요 공항을 포함한 수도(서울)로의 필수 여행은 특별한 사전 허가 없이 금지되고 있다

요일 기자들에게 말했다.

한국은 엄격한 폐쇄를 명령한 적이 없지만 2월 29일의 최고 909 건에서 이달 초 한 자리까지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공격적인 테스트 및 추적 노력에 온 세계가 찬사를 보냈다.

정부는 5월 6일 엄격한 사회 확산 캠페인을 끝내고 학교 재개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포함하여 "일상 생활 검역"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시작했다.

그러나 KCDC의 정은경 이사는 공공 활동이 재개되면서 바이러스 전염을 추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접촉을 추적하고 예방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지만 그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서울의 새로운 조치는 용산 미군 주둔지와 인근 K-16 기지가 건강 보호 조건-찰리(Health Protection Condition-Charlie)라고 알려진 경보 수준이 높은 유일한 미국 시설이기 때문에 미군 공동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주요 공항을 포함한 수도(서울)로의 필수 여행은 특별한 사전 허가 없이 금지되고 있다

두 개의 주요 공항을 포함한 수도(서울)로의 필수 여행은 특별한 사전 허가 없이 금지되고 있다

## 밤 영업제한 어기고 와인 마시던 커플, 알고 보니 대통령 부부

지난 24일 오전 0시 18분(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국립빈오페라극장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어긴 식당을 발견했다. 솔레(Sole)라는 이탈리아 음식점 앞의 노천 테이블에서 한 커플이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식당·카페의 영업 금지령을 지난 15일 해제했지만, 영업시간을 밤 11시 까지로 제한했다. 따라서 이 커플이 와인을 마신 솔레 음식점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식당 주인은 최고 3만유로(약 4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경찰관들은 얼굴이 어딘가 익숙한 커플의 신원을 확인하고서는 깜짝 놀랐다. 현직 대통령으로 재임중인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76)과 영부인 도리스 슈미다우어(57) 여사였기 때문이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경찰에



이실직고 하고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알렸다.

그는 토요일에 맞아 식당 영업 금지령이 풀린 이후 처음으로 아내와 외식을 했으며, 이야기 꽃을 피우다보니 한 시간 이상 시간이 흘러 자정을 넘긴 줄 몰랐다고 했다.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은 11

▲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왼쪽)과 도리스 슈미다우어 영부인/퓨어피플

시 이전에 가게 문을 닫고 귀가했으며, 음식과 와인 값도 11시 이전에 모두 지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분위기



▲ 판 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 부부가 와인을 마시던 이탈리아 음식점 솔레의 노천 테이블과 음식점 주인/디 프레스

에 취한 대통령 부부는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귀기한 이후에도 노천 테이블에 계속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대통령 부부는 경호원 없이 조용히 식당에 행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영업 시간 제한 규정을 어기게 돼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실수였지만 이번 일로 생길 것 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만약 식당 주인이 벌금을 내야 한

다면 내가 모두 내겠다"고 했다. 시 당국은 식당 주인에게 벌금을 매길 지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당장 내리지 않았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빈 대학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녹색당 하원 의원과 당 대표를 지냈다. 2017년부터 6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다. 18세에 결혼해 19세에 아버지가 됐던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첫 부인과 2015년 이혼하고 이 해에 19세 연하인 현재의 부인 슈미다우어 여사와

결혼했다.

오스트리아는 총리가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각제 국가다. 하지만 대통령이 내각과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다른 내각제 국가의 대통령보다는 권한이 큰 편이다. 그래서 의원집정부제 국가로 분류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4일까지 모두 1만650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그중 640명이 숨졌다.